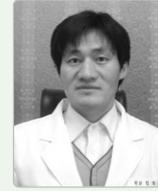


일본 동물임상의학회 제30주년 기념연차대회에 다녀와서...



김 종 열

· 광진동물종합병원 원장
· vet9555@yahoo.co.kr

매년 11월이 되면 일본 오오사카(大阪)에서는 일본 최대의 수의사들 행사가 시작됩니다.

1년 전 처음 참석해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일본 동물임상의학회. 앞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획할 수 있었고 각오를 새롭게 했던 작년의 11월이 었 그제 같은데 벌써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이번 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대한 수의사회 정영채 회장님, 노천섭 사무총장님, 충남대의 박성준, 이영원, 정성목 교수님, 그리고 2011년 와사바(WASAVA) 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인 강종일 원장님 및 백영기 전북대 명예교수님, 로얄동물메디컬센터 정인성 원장님을 비롯한 VCA KOREA 회원 여러분 등, 30 명이 이번 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학회는 3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3개 국의 합동 심포지엄이 준비 되어있었고, 강종일 와사바 조직위원장께서는 2011년 (WASAVA) 컨퍼런스 홍보를 목적으로 동행하였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학술 증례발표를 준비했기에 의미가 더한 학회 참석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날- 나고야에서 이누야마(犬山)동물병원 병원 견학.

11월 18일, 이른 아침 백영기 교수님, 로얄동물메디컬센터 정인성, 김영환 원장님, 스타동물병원 서범석 원장님이 선발진으로 나고야의 동물병원을 견학하기 위해 인천 공항에 모였습니다. 마침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인천지원장으로 계시는 이기욱 선배가 은사이신 백교수님을 배웅하기 위해 나오셔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국내 검역현황에 대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착



【그림 1】 이누야마동물병원 전경

지인 나고야에서는 나고야 차야가사카(茶屋ヶ坂) 동물병원 가네모토(金本 勇)원장님께서 6인승 승용차로 우리의 숙소인 치산 호텔로 찾아오셔서, 약 30km 떨어진 이누야마(犬山)동물병원의 안내를 위하여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처음 도착하여 들어간 접수처에는 은행에서나 볼 수 있는 대기자수가 표시되는 디지털 시스템을 보며 그 규모와 환축 수 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누야마동물병원은 오오타 원장님

■ 다녀왔습니다 II

(55)께서 20여 년간 운영해 온 일본 최대급의 동물병원으로 규모뿐만이 아니라 진료 수준 또한 우리가 보고 배우야 할 점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은 보호자를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에서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그 지역 사회에서 수의사로서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는 점 이었습니다. 1일 평균 400 케이스를 진료하고 15 케이스의 수술, 철저한 보호자 관리 등, 앞으로 국내의 병원들이 어떠한 목표를 정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후 7시경에 진료가 모두 끝나고, 오오타 원장님께서 마련하신 만찬에 참석하여 환대를 받았습니다.

둘째날- 시네 관광과 차야가사카(茶屋ヶ坂)동물병원 견학.

19일에는 오오타 원장님의 사정으로 병원 견학 대신에 나고야에서 관광을 하였는데, 점심에는 정인성 원장님의 지인이신 고니시(小西)사장님의 안내로 점심식사 접대를 받았고 저녁에는 가네모토(金本 勇)원장님의 초청을 받아 차야가사카(茶屋ヶ坂)동물병원 견학과 저녁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식사 후에는 가네모토 원장님의 부인께서 손수 운전하여 호텔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셋째날 - 이누야마동물병원에서 수술 견학 후, 오오사카에서 후발진과 합류.

20일 아침 9시에는 다시 이누야마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견학을 하고 직접 만들었다는 bone plate 등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호탕한 성격의 오오타 원장은 우리들을 위해 역에서 병원까지 자동차를 내주시고 환대를 해 주었습니다. 12시 까지 오전 진료 견학을 마치고, 오후 3시경에 오오사카행 신칸센(新幹線)을 타고 오오사카에 도착하여 한국에서 아침 비행기로 도착한 후 발진 20여명과 합류하였습니다.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님을 비롯한 후발진은 2곳의 병원을 견학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오벳VR센터와 모모야마다이(桃山台) 동물병원이 그 곳 인데 사진으로나마 소개해봅니다. 저녁에는 참가자 전원이 함께 식사하며 3박 4일간의 일정을 위하여 서로 각오도 다지고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토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롱초롱한 동료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한국 수의학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2】 네오벳 VR센터 기념촬영



【그림 3】 모모야마다이동물병원 기념사진

넷째날 - 세미나 등록과 30주년 기념 축하연에 참석.

토요일(11월 21일) 아침8시 30분에 학회장을 둘러보며, 많은 참석자들과 전시용 부스로 인해서 가까운 일본에 이처럼 커다란 학회가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는 30주년 동물임상의학회를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로 매우 충실하고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및 대만의 합동연구회를 공동개최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21일과 22일에는 일본, 한국, 대만의 합동연구회 주관으로 클리니컬 심포지엄(외과 및 내과)이 일본어와 영어의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져, 400여 명의 3개국 임상수의사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첫날이라 보고 싶은 것은 많고 수많은 패널 디스커션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각 패널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간단히 원하는 세미나를 찾아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과에 관심이 있어서 각막궤양에 대한 처치 및 통증관리에 대한 발표에 참석하여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안과 처치의 기본과 주요 프로토콜을 배울 수 있었고 통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에 대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참석한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합동 연구회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전립선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현 일본인의 사람 비뇨기과 전문의와 임상수의사의 발표가 이루어졌고 사람과 동물의 생리적인 차이와 진단 처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 합동 세미나 장에 내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에는 30주년을 기념하는 연회가 준비되었으며 정말 많은 일본수의계 원로분과 젊은 수의사들이 참석해 있었고 우리들은 3개의 테이블이 나누어서 기념식을 지켜봤습니다. 이곳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연회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특히 이번에 함께하신 백영기 교수님이 특별 감사장을 받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상은 30주년을 기념으로 특별히 가장 공로가 크다고 생각되는 몇분 안 되는 수의 원로님들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상으로 외국인으로 이 상을 받으신 것은 백영기 교수님이 처음으로 너무나 기뻐하셨고 여러 수상자 대표로 감사연설까지 하는 영광도 누리셨습니다.



【그림 4】 백영기 교수 특별감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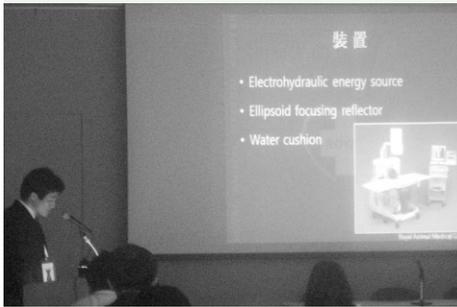


【그림 5】 대만수의사회의 기념패 전달

다녀왔습니다 II

연회가 계속되는 동안 와사바 컨퍼런스 홍보와 참여를 위해 강종일 원장님은 식사도 잊으시고 열심히 뛰셨고 VCA KOREA 회원이신 정인성, 손은필, 김은태 원장 등 여러 원장들이 와사바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셨습니다. 외국에 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2011년 와사바 컨퍼런스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섯째날- 가슴 떨리는 학회발표



[그림 6] 동물임상의학회 발표 모습

VCA KOREA 회원들이 백영기 교수님의 주선으로 동물임상의학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의 제23회 연차대회부터 이었는데, 작년에는 2개의 포스터 발표를 하였고, 금년에는 4개의 구두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얄동물메티컬센터 정인성 원장님을 비롯하여 정근우 수의사, 송파동물종합병원 강동원 원장님과 광진동물종합병원에서 본인 등, 4명이 발표연자로 참석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수의사들이 발표한 학술 내용입니다.

1. 정인성 원장 - 개의 요로결석증에 대한 체외충격파결석파쇄술(ESWL)의 유효성과 안전성
2. 김종열 원장 - 체외충격파결석파쇄술(ESWL)을 사용한 요크셔 테리아의 자연적 신장결석 치료의 1증례
3. 강동원 원장 - 개의 아토피성피부염에 있어서 한방치료의 1증례
4. 정근우 수의사 - Surgical therapy(angiotomy) of aortic thromboembolism in 2 dogs

발표는 각각 일본어와 영어로 이루어 졌으며 현지 일본수의사들의 질문과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고, 한방 치료의 앞선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힘든 세미나 일과를 마치고 일요일 저녁은 마음껏 즐겁게 어울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섯째날- 짧은 일본 관광(동대사와 나라건강랜드 온천)

월요일 아침에는 오오사카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둘러 나라(奈良)로 이동하여 거대한 목조 건물인 동대사(東大寺)에 들렀는데, 이곳은 일반 사찰과는 달리 사슴들이 자연스럽게 사람과 공존하면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슴들은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 물려들었고 저절로 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풍경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가량의 관광을 마치고 그 유명하다는 일본 온천을 체험할 기회를 갖고 그동안 발표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씻어 냈습

니다. 역시 일본 온천은 한국의 온천에 비해 색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오사카 간사이(關西)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로가 이번 학회에 참석한 소감을 말하는데 모든 원장님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참석한 일행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동안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히 마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오사카 간사이(關西)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아쉬운 마음과는 달리 금시에 도착하여 교수님들 및 회원님들과 작별을 나누고 짧은 일본 학회 여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동안 모두 건강히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여러 동료 원장님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수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일본 수의사들의 장인정신이 깃든 모습이 그 동안 방황하던 나를 더욱 채찍질하게 했고, 의욕을 다시 불어 넣었습니다. 5박 6일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을 통해 일본의 병원들, 진료적인 차이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일본의 임상의 한 단면을 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치와 발전의 미래를 그려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가정의 포근함과, 일상에서의 일들이 주는 행복감... 여행은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야마네 회장님을 비롯한 동물 임상의학회 관계자 여러분, 방문했던 병원의 관계자, 정영채 회장을 비롯하여 노천섭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부부, 강종일 2011년 와사바(WASAVA) 조직위원장 그리고 VCA KOREA 동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특히 후학들을 위해 함께 동행 하셔서 통역도 해주시고 특별상도 수상하신 백영기 명예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Tip

우리가 참석한 일본 동물임상의학회의 연혁을 소개 합니다.

- 1980년 : 돗토리시 문화홀에서 제1차 동물병원연구그룹연차대회 개최
(참가자 127명, 총경비 75,000엔)
- 1982년 : 제3회부터 제16회(1995년)까지 소동물임상연구회 연차대회로 개최
- 1991년 : 재단법인 돗토리 동물임상의학연구소 설립(야마네요시히사(山根義久)박사 이사장 취임)
학회소재지 : 돗토리현(鳥取縣) 구라요시(倉吉)시 하찌야(八屋) 214-10,
돗토리현동물임상의학연구소(鳥取縣動物臨床醫學研究所)
- 1996년 : 제17회부터 일본학술회의 등록하고 동물임상의학회 연차대회로 개최
- 1998년 : 제19회 연차대회부터 오오사카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드센터(ATC)에서 개최
- 2003년 : 제24회 연차대회부터 오오사카 국제회의장(그란큐브 오오사카)에서 개최

2009년의 제30차 동물임상의학회는 11월 20, 21, 22일 3일 동안 오오사카 국제회의장(그란큐브 오오사카)에서 개최되었는데, 약 5,000여명이 참석하여 발표 연제 300여개로 22개 회장에서 동시에 진행 되었으며, 2개층(3층, 5층)의 대형 홀에서는 서적, 의료기, 약품, 사료 등, 194개 업체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